



(로페즈)

잘 뽑은 두 '용병' 열 '토종' 안 부럽네

KIA타이거즈의 이유 있는 '선전'

로페즈·구토크스 나란히 방어율 2점대 맹활약 '역대 최고'... 4강 발걸음 '가뭄'

'KIA 용병농사 씨 뿌리기는 끝났다' 지난해 용병농사로 재미를 보지 못했던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건실한 구토크스와 로페즈를 앞세워 가을 풍작을 기대하고 있다.

2008시즌 KIA에는 '쇼맨십의 황제' 리마를 비롯해 디아즈, 데이비스 세 명의 투수가 다녀갔다. 메이저리거 내야수 발데스도 KIA 유니폼을 입는 등 '이름값'으로는 역대 최고의 용병 잔치였다.

하지만 소문난 익살로 그라운드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리마는 4.89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6패를 거두는데 그치며 중도에 짐을 싣고, '수비형 용병' 발데스는 0.218의 타율과 6개의 실책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다.

이후 영입한 디아즈는 부상으로 기량 발휘를 못했고, 데이비스는 날카로운 강속구에 비해 경기 운영 능력이 부족했다. 이런저런 부진 속에 세 명의 투수가 거둔 승수는 고작 5승에 불과했다.

2009시즌 개막 한 달여가 지난 12일 현재 새로운 두 용병 투수는 이미 5승을 채웠다.

구토크스가 2.48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로페즈는 2.34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2패를 거뒀다.

로페즈가 1승에 그쳤지만 두 차례 7이닝 무실점의 완벽투를 선보이고도

승을 챙기지 못하는 등 실력에 비해 승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들의 기록만큼이나 값진 것은 두 투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굳건히 지켜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구토크스는 6게임에 선발로 등판해 40이닝을 지켜냈다. 볼펜에서 2게임을 뛰었던 로페즈도 이후 6차례 선발 등판에서 40이닝을 소화했다. 이들의 활약에는 140km 후반의 빠른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 그리고 안정된 제구가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구토크스는 커트 패스트볼이 일품이다. 140km 후반의 직구와 142km까지 찍은 커트 패스트볼을 섞어 타자를 현혹하는 구토크스는 포크볼, 슬라이더, 싱커, 커브 등 자유자재로 변화구를 구사한다. 일본에서 4시즌을 뛰며 쌓은 노련함도 장점이다.

150km이르는 매서운 직구로 빠른 승부를 하는 로페즈는 예리한 슬라이더로 상대의 허를 찌른다. 직구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하는 로페즈는 포크볼과 싱커도 섞어 던진다.

지난 3일 한화에 4이닝 9실점(4자책)으로 못매를 맞았던 로페즈는 9일 롯데전에서 또다시 패전투수가 됐지만 9이닝 완투를 선보이며 경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며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을 즐기는 구토크스에 비해 내성적인 로페즈는 집 근처의 바를 찾는 게 유일한 취미다. 하지만 마운드에서 만큼은 속전속결의 과감한 승부를 즐기는 님은 꼴 투수들이다.

2점대의 평균자책점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선 두 용병 덕분에 4강을 향한 KIA의 발걸음이 가볍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시즌 9번째 '멀티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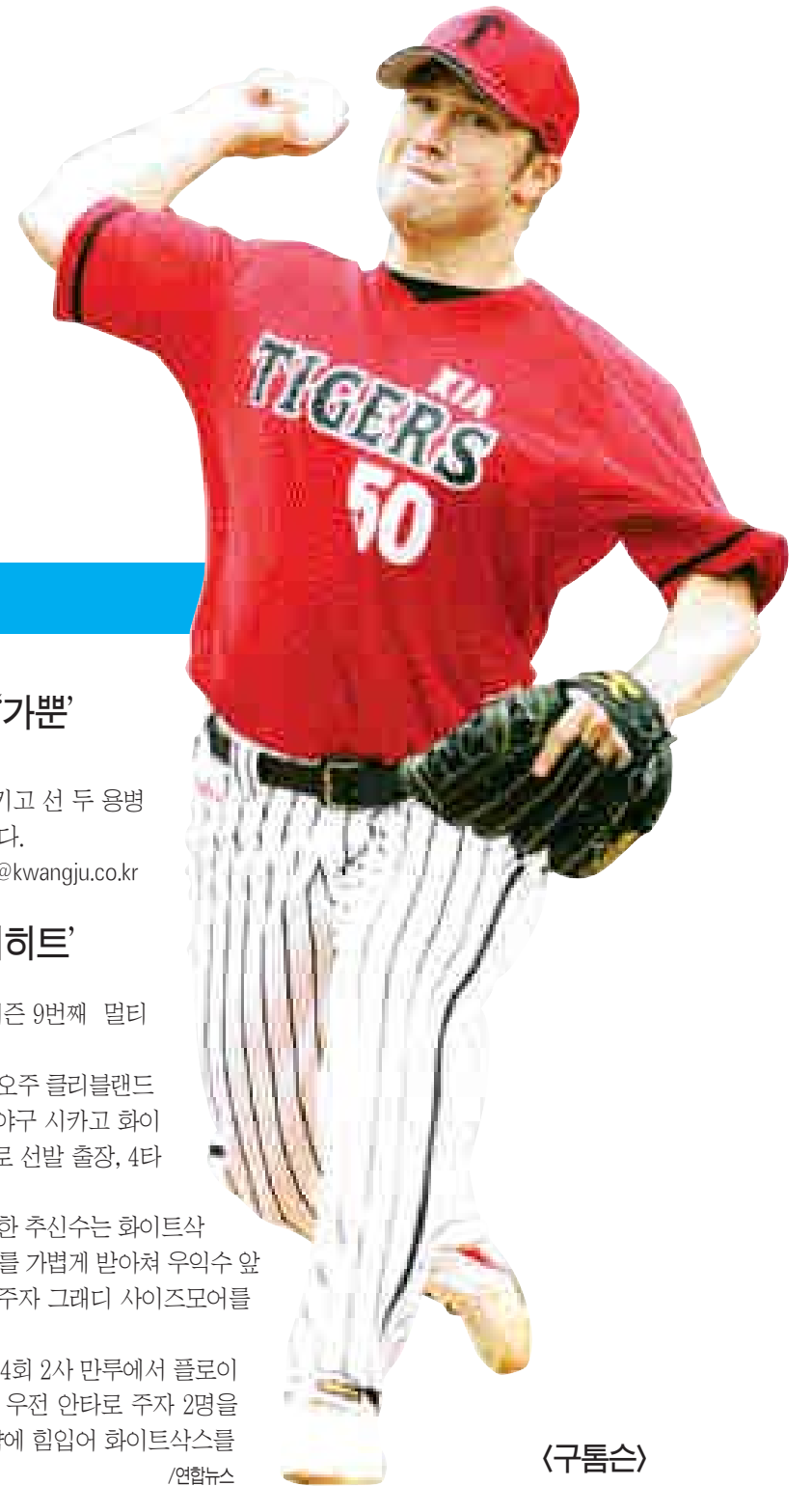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시즌 9번째 멀티히트를 때려내며 3타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1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스브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에 우익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 4타수 2안타 3타점으로 공격을 주도했다.

1회말 1사 1,3루 기회에서 타석에 등장한 추신수는 화이트삭스 선발 개빈 플로이드의 2구째 슬라이더를 가볍게 받아쳐 우익수 옆에 깨끗한 안타를 쳐냈다. 추신수는 3루 주자 그레디 사이즈모어를 홈으로 불러들여 팀의 첫 타점을 올렸다.

3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4회 2사 만루에서 플로이드의 초구 체인지업을 때려 같은 코스의 우전 안타로 주자 2명을 불러들였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의 활약에 힘입어 화이트삭스를 9-4로 꺾고 4연패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



(구토크스)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3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12일 여수에서 열린 4일의 막을 올렸다. 이날 개회식은 16개 시·도 2천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선수단 대표선수 모습.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윤진섭·박혜정 '금빛 질주'

제 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여수서 개막

전남대표팀이 제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첫 날 힘찬 출발을 보였다.

전남은 12일 여수 망파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경기에서 금 2, 은 1, 동 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덕수학교 윤진섭이 육상트랙 남자 100m(T13·13초22), 구례여중 박혜정이 여자 100m(DB·14초92)에서 각각 1위로 골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광학교 박제훈은 남자 100m(T13)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은광학교 장지웅(남자 100m T13)과 소림학교 김재환(남자 100m DB)은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다.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대회는 12일 여수 전남실내체육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열린 4일에 돌입했다. 전국장애학생체육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천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망파경기장 외 10개의 경기장에서 골프·농구·배구·보치아·수영·씨름·육상·축구·탁구·e스포츠 등 11개 종목의 경기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 전남은 8개 종목에 123명(선수 75명·임원 48명), 광주는 10개 종목·88명(선수 63명·임원 25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한편 대회기간 동안 전남도는 바다체험행사·오프체험관·여수관광시티투어 운영 등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도 준비했다. 이들 행사를 통해 전남을 찾은 선수·임원들에게 '녹색의 땅' 전남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오초아의 대회 4연패 저지!

신지에 2승 사냥 나선다



LPGA 사이베이스 내일 개막

이번 대회 우승이 절실하다. 그러나 오초아의 그늘에 가려 3년 연속 준우승에 그친 '코리안 남자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한국 선수들은 2006년 한희원(31·힐라코리아)과 배경은(25)이 오초아에 2타 뒤진 공동 2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이정연(30)이 3타 차 단독 2위, 박세리(32)는 단독 3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최나연(22·SK텔레콤)이 1타 차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고 플라크리머(미국)가 우승한 2005년에도 장정(29·기업은행)과 박희정(29·CJ)이 1타 차 공동 2위를 차지했다.

2004년 박지은(30·나이키골프)이 세리스타인하워(미국)에 뒤져 단독 2위에 머물렀던 것까지 더하면 한국 선수들이 무려 5년 동안 준우승만 계속한 셈이다. 올해 타이틀 사냥의 선봉에 설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는 역시 신지에(21·미래셋·사진), 위성미(20·나이키골프) 등 '젊은 피'들이다.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이베이스 클래식 4년 연속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다.

오초아는 14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 어퍼 몬트클레어 골프장(파72·6천413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서 최근 3년 연속 정상을 지켜왔다.

11일 끝난 미켈름 울트라오픈에서 10위에 그쳐 우승한 크리스티 커(미국)에게 4만1천달러 차이로 삼금 랭킹 1위 자리를 내준 오초아는 이번 대회 우승 상금 30만달러를 차지해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또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커에게 6점 차로 추격을 허용했고 최저타 부문 역시 69.5타로 70타의 커와 간격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 오초아 입장에서는

미켈름 울트라오픈에서 각각 공동 15위(위성미), 20위(신지에)를 차지한 둘은 신인왕 부문에서 1.2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삼금 랭킹 3위에 올라 있는 신지에는 1위 커와 격차가 21만8천달러로 벌어져 다시 선두 경쟁에 뛰어들려면 이번 대회 우승이 요긴하다.

신지에는 11일자 세계 랭킹에서도 커에 3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또 지난해 공동 2위에 올랐던 최나연이나 미켈름 울트라오픈에서 2,3위로 아쉬움을 삼킨 김인경(21·하나금융), 김승희(21)도 우승에 도전장을 낼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다. /연합뉴스